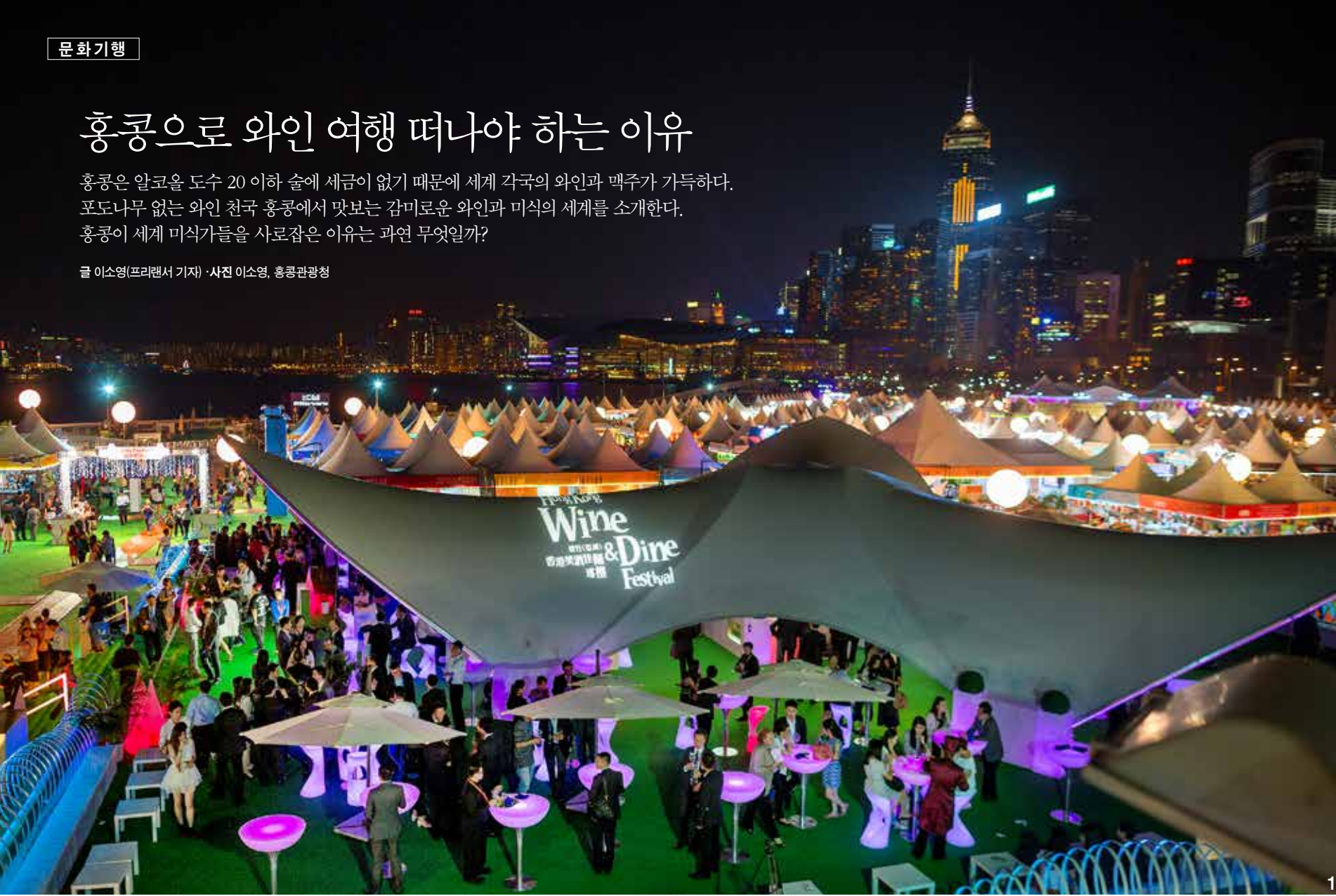


# 홍콩으로 와인 여행 떠나야 하는 이유

홍콩은 알코올 도수 20 이하 술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와인과 맥주가 가득하다. 포도나무 없는 와인 천국 홍콩에서 맛보는 감미로운 와인과 미식의 세계를 소개한다. 홍콩이 세계 미식가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글 이소영(프리랜서 기자) · 사진 이소영, 홍콩관광청



추가 충전도 가능하다. 와인뿐 아니라 맥주, 위스키, 커피 부스도 있다. 현지인과 여행객은 만찬을 만끽할 수 있다. 각종 와인을 맛보기 위해 낮부터 참여하거나 날마다 참여하는 와인 애호가도 많다.

11월 내내 열리는 그레이트 노벨름 피스트는 홍콩 100여 개의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미식 행사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450홍콩달러 이하의 특별 메뉴를 선보이는 미쉐린 레스토랑도 16곳이나 되니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유서 깊은 홍콩 요리 레스토랑과 럭셔리 레스토랑, 서민 맛집도 대거 참여하는 11월 대표 이벤트다.

행사가 끝난 후라도 홍콩에서 어느 레스토랑을 방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레이트 노벨름 피스트에 참여한 레스토랑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맛있고 개성 있는 레스토랑으로만 구성한 행사이기 때문. 홍콩요리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광둥요리(廣東料理)에 뿌리를 둔다. 여기에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시대를 거치고 제2차 대전 이후 중국 본토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서양의 맛이 어우러지는 음식 문화를 형성하게 됐다. 또한 1960년대 홍콩이 호황에 이르면서 각국의 다채로운 식재료와 요리사들이 모여들어 국제 미식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 여기에 20도 미만 주류의 세금이 없어지면서 홍콩 미식은 한 단계 더 발전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전통 요리 레스토랑, 럭셔리 레스토랑, 미술품 있는 갤러리 레스토랑, 길거리 식당,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마실 수 있다. 와인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라면 외부에서 사기도 무방하다. 한국과 달리 코르크 차지를 받지 않거나 저렴하다.

(www.discoverhongkong.com/kr)



## '와인 앤드 다인 축제' & '그레이트 노벨름 피스트'

홍콩은 어떻게 와인 천국이 되었나? 홍콩은 2008년부터 20도 이하 모든 주류의 세금을 없앴기 때문에 각국의 와인이 몰려드는 아시아 허브가 됐다. 와인 수입은 2007년 16억홍콩달러에서 2017년 120억홍콩달러로 7배 이상 뛰어올랐다. 홍콩은 10년 만에 와인 무역과 유통의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해 크리스타·소더바·재키스와 같은 와인 경매에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맥주 역시 주세가 없기에 크래프트 비어 브루어리와 펍도 인기가 많다.

홍콩의 술은 다국적 미식과 어우러져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고 있다. '와인 앤드 다인 축제'(Wine&Dine Festival)와 '그레이트 노벨름 피스트'(Great November Feast) 역시 홍콩을 와인 강국으로 만든 새로운 물결이다.

지난 10월 25~28일 열린 와인 앤드 다인 축제는 20도 미만의 면세를 발표한 후 시작돼 올해 10회를 맞았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축제'이며, 해변 야경과 각국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매년 인기가 더해간다. 대관람차가 있는 센트럴 허브 프론트 해안가를 따라 400여 개의 와인·요리 부스가 들어서 장관을 이룬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와인과 음식 교환 토큰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와인일수록 많은 토큰이 필요하며

1, 2 올해 10회를 맞이한 와인 앤드 다인 페스티벌. 야경이 아름다운 홍콩의 해안에서 열린다. 3 100여 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11월의 홍콩 미식 행사 그레이트 노벨름 피스트.



1



2

**홍콩의 새로운 미식 지도를 펼쳐다**

홍콩은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도 인정한 미식 국가다. 이왕이면 전망 좋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떨까?

'미쉐린 가이드 홍콩 마카오 2018'에서는 총 227개의 레스토랑을 소개했는데, 그중 별 1개 레스토랑 3개(에퓨아, 스시 토카미, 예 상하이)가 하버시티에 있다. 하버시티는 450개의 매장, 70여 개의 식당, 호텔 3개, 갤러리 등을 보유한 빅토리아 하버의 쇼핑몰이다.

그레이트 노벨바 피스트에도 참여한 프렌치 레스토랑 '에퓨아'(EPURE)는 프랑스 루이 왕조의 궁전스타일로 설계한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미쉐린 1스타를 받았다. 프랑스 직송 식재료로 만든 요리에 어울리는 프랑스 최고급 와인을 주문해 낭만적 여행 분위기를 추가해보자. (www.harbourcity.com.hk)

미쉐린 스타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만 받는 것은 아니다.

미쉐린 1스타 딤섬 식당 '팀호완'(Tim Ho Wan) 본점은 삼수이포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현지인과 어울려 활기찬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포시즌 호텔 중식당 출신 맥카이푸이(麥桂培) 오너 셰프가 2009년 팀호완을 창업한 후 2010년부터 계속 미쉐린 스타를 획득했다. 딤섬 한 바구니가 4천원 정도부터 시작되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쉐린 식당인 셈이다. 팀호완에서는 자리에 앉으면 2개의 주전자가 나온다. 하나는 차가 담겨 있으며, 다른 하나는 뜨거운 물이 담겨 있다. 현지인처럼 뜨거운 물을 부어 앞에 놓인 찻잔과 수저, 그릇을 깔끔히 헹궈보자. 이곳의 인기 딤섬은 찹쌀피 속에 통새우를 넣은 하가우(Ha Gau), 새우와 돼지고기를 넣은 샤오마이(Siu Mai), 얇은 찹쌀피에 고기와 새우를 채운 기다란 창편(Chang

1, 2  
하버시티에 위치한 미쉐린 1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에퓨아' 전경과 달콤한 디저트.



3



4

Fun) 등이다. 간장 소스 양념 닭발과 연잎 찹밥도 맛있다. 메뉴판이 영어, 중국어로 구비돼 있으니 주문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홍콩뿐 아니라 각국에 분점이 있으나 이곳 본점에서는 맥카이푸이 오너 셰프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딤섬은 주로 암차와 잘 어울리지만, 와인과의 환상의 조화를 이룬다. 홍콩은 아시아 예술의 중심이기도 하다. 매년 3월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비젤 홍콩'이 열릴 때 특히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 바로 '비보'(Bibo)다. 요시토모 나라, 데미안 허스트, 뱅크시 등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미술가들의 작품이 입구에서부터 가득해 마치 갤러리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수 지드래곤이 수집하는 미술가로 알려진 카우스(KAWS)의 대형 조형 작품들이 눈에 띈다. 제우스, 존원 등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들도 직접 방문해 벽화를 그렸다. 프렌치에 홍콩 감성을 가미한 코스 요리이기에, 샴페인에서부터 화이트, 레드, 스위트 와인까지 순차적으로 매치하면 어울릴 것이다. (www.bibo.hk)

와인 경매 회사 재키스(Zachys)의 스페셜리스트 도라 캄(Dora Kam)은 홍콩은 와인뿐 아니라 맥주, 위스키 마니아의 천국이라고 예찬한다. 낮은 도수 주류에는 세금(VAT, GST)이 없고, 세계 각국의 요리와 와인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위스키는 도수가 높아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만 1인당 1병은 면세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그녀가 추천하는 와인 명소는 '르 갱즈 뱅스'(Le Quinze Vins), '르 비스트로 와인비스트'(Le Bistro Winebeast) 그리고 '클럽 칭'(Club Qing)이다.

"르 갱즈 뱅스'는 엄청난 와인 리스트가 구비돼 있는데, 프랑스 와인만 2천 종이 넘습니다. 특히 내가 선호하는 브루고뉴 와인들이 돌보이지요. 가격대도 다채로워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요. 친구와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르 비스트로 와인비스트'는 레스토랑과 와인 샵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3 가장 저렴한 가격의 미쉐린 1스타로 유명한 중식당 '팀호완'의 딤섬.  
4, 5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가득한 갤러리 레스토랑 '비보'의 에피타이저와 전경.



5



### 홍콩에서 와인·맥주 쇼핑하기

와인보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로컬 수제 맥주를 권한다.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펍과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는 홍콩 특유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문젠(Moonzen), 영마스터(Young Master), 히어로즈(Heroes), 포암(Foam), 라이언 록(Lion Rock), 시티브루(Citibrew)가 대표 로컬 브루어리다. 라거, 페일 에일, IPA, 스타우트 등 다채로운 맥주로 구성되어 있으니 테이스팅 메뉴로 작은 컵에 여러 종류 주문해 맛보면 좋겠다. 시내에는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펍들이 있으며, 브루어리는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홍콩 수제 맥주는 병·캔맥주로도 판매하는데, 다양적이면서 이국적인 레이블 디자인부터 입맛을 돋운다. 여행 기념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65필(peel)'은 센트럴 65필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가 그대로 펍 이름이 된 곳. 홍콩을 촬영한 사진 작품으로 장식된 홍콩 스타일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직원의 친절할 설명을 들으며 로컬 맥주와 인터내셔널 크래프트 맥주 중 선택할 수 있다. 달콤한 꽃향이 매혹적인 히비스커스 핑크 콜쉬(Hibiscus Pink Kolsch)와 복숭아 과일 향이 가득한 시그니처 페일 에일(Signature Pale Ale) 맥주를 추천 받았다.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시원한 맛이다. 몽콕에 위치한 '탭 더 에일 프로젝트'(Tap-The Ale project)도 유명하다. 세 가지 크기의 잔(0.2L, 0.4L, 2.0L)으로 수제맥주를 주문할 수 있으며, 바삭한 치킨과

프렌치 프라이를 중심으로 한 안주도 풍성하다. 영마스터 브루어리와 한국 수제 맥주 브랜드 맥파이(Magpie)가 협업한 맥주 슬립리스 시티(Sleepless City)를 메뉴에서 발견하니 반갑다. 알코올 도수는 9도로 약간 높은 편이며 커피와 초콜릿 향이 나는 맛있는 흑맥주다. 홍콩 펍은 중국 식재료를 기미한 서양식 안주 메뉴가 푸짐하기 때문에 식사를 위해 방문하는 것도 좋다.

홍콩은 스타벅스에서도 와인과 수제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쇼핑하다가 IFC몰 스타벅스에서 잠시 앉아 낯설 하기에 딱 좋다. 감미로운 커피 향기 술술 나는 카라멜 마키아토 크림 에일과 모카 브라운 에일이



기분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레드·화이트 와인은 글라스로 판매한다. 칵테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각종 증류주를 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칵테일이다 보니 여행의 낭만을 더해줄 근사한 칵테일 바들이 많다. '룸 309'는 센트럴 포팅거(The Pottinger) 호텔에 숨겨진 스피키지(Speakeasy) 바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텔의 또 다른 바 '엔보이'에서 카드 키를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다. 세로로 긴 바 테이블에 20명 정도만 착석할 수

있다. 홍콩을 대표하는 바텐더인 안토니오 라이(Antonio Lai)가 메뉴판에 없는 칵테일도 즉석에서 만들어준다. 원하는 스타일을 주문하거나 '나에게 어울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도 된다. 친절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의 퍼포먼스만 보아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와인은 어디서 사면 좋을까? 한국에 가져올 와인이나 현지에서 캐주얼 식사에 곁들일 와인이라면 슈퍼마켓을 추천한다. 홍콩 슈퍼마켓은 전통 시장과 또 다른 매력으로 여행객을 매료시킨다. 홍콩에서 고급 슈퍼마켓을 꼽으려면 단연코 '시티 슈퍼'(City Super)일 것이다. IFC몰과 허버시티 등에 4개의 체인이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와인, 맥주, 전통술 셀렉션이 쇼핑하기 좋게 국가별로 진열돼 있다. 신선한 치즈와 육가공품도 이곳의 인기 아이템. 세계에서 날아온 산해진미와 향신료들이 가득하다. (www.citysuper.com.hk)

센트럴에 있는 '올리버스 더 델리카트스'(Oliver's The Delicatessen)은 와인에 특화된 마켓이다. 서양인이 특히 좋아하는 슈퍼마켓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연 눈에 띄는 와인 코너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하다. (www.oliversthedel.com.hk)

셰익스피어는 '좋은 와인, 훌륭한 동반자, 따뜻한 분위기에 둘러싸이면 누구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와인은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하며, 일상의 피곤함을 잊게 하는 좋은 친구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홍콩의 와인과 함께 라면 더욱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2, 3 '올리버스 더 델리카트스'와 '시티 슈퍼'는 와인 쇼핑하기 좋은 슈퍼마켓이다. 4 바 '룸 309'에서는 인기 바텐더 안토니오 라이의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1 홍콩 수제 맥주는 다채로운 풍미로 여행객들을 사로잡는다.